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2.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가정당 1부씩 고 난주간 묵상 안내집을 수령해 가세요.
3. 성금요일 금식기도회 - 4/19 6pm 분당
중보기도카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4. 부활절 한인 연합 새벽예배 - 4/21 am 6:30 할리팩스한인교회
부활절 감사 예배 : 2PM 분당
5. 선교, 구제헌금 1000불 지급 - 사스카춘한인교회 박현신목사님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30
감사 헌금	CD \$160
십일조 헌금	CD \$190
장년 출석	11명
어린이 출석	12명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종려주일 예배 순서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벧전 4:8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허물을 덮는 사랑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고후 5:13-19	다함께
설교	주를 위해 사는 자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도		김승용목사

목회자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참혹한 십자가는 원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우리가 저야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아마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강도 바라바일 것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은 그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주의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잡힌 사형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라바가 빌라도의 암살도 시도하였다고 봅니다. 이처럼 바라바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눈에는 아주 위험하고 불량하며 범법사실이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셈법이 빠르고 민심을 잘 이용하던 빌라도에게 바라바는 로마에 대한 자신의 충성과 식민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지배력을 보여주기 좋은 예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라바는 꼼짝없이 십자가형만을 기다려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도 바라바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합당한 죄인을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어줍니다. 빌라도 자신도 당황스러운 전개였기에 몇 번이나 만류해 보지만 성난 민심에 밀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라바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라바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어 자신은 생명을 보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재력이나,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절대적인 은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풀려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원래 자신이 죽을 죄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풀어주셨다고 착각한다면 그는 심지어 자신이 죽다 살아난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라바는 자기 대신에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알아보게 되고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라바의 뒷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놀라운 사랑이 펼쳐졌음에도 믿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라바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따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교회 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라바는 이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로마에 의해 순교하는 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저 선물로 펼쳐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교회) 베드로전서 4:8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 후서 5:13-19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1)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David Meece
made by musicday

B \flat 9 D14/A D Gm9 Fm7 B \flat 7 EbM7 B \flat D

있을 수 없네 -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
 보았네 - 피뎀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

Cm7 Dsus4-3 Gm7 /F Gm/E

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 날 향한
 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린 신유서 의 눈물 - 날 향한

B \flat /C Cm Fsus4 B \flat Cm

사 - 랑 때문 에 우리 때문 - 에 생명 주셨고 -

Eb/F Eb/B \flat B \flat Gm9

우리 때문 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 보리오

B \flat /C Fsus4-3 1. B \flat

- 르셨네 - 무 지한 우리 - 때문 에 - 나는

2. B \flat /A G \flat 9 D \flat /F

-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 네 - 나의 삶

D \flat /E C \flat /E \flat C \flat m/D

- 울모두 주께 드리 - 는 것 그가 날 위해 모 - 든 것 주

G \flat /D \flat Ebm7 A \flat C \flat /D \flat

- 섰 듯 어 - 나의 삶 - 을 주께 - 드리리 - 주 위

D \flat /E \flat Eb/F B \flat 9 Cm7

해 - 바로 우리 때문 - 에 십자가 지셨고 -

주의 옷자락 만지며

LAMP

A E/G# F#m E

주 발 앞 에 - 무릎 꿇고 - 그 사 랑 에 - 나 안 기 네 -

A E/G# F#m

어 떤 말 도 - 그 어 떤 소 리 - 도 그 발 앞 에 서 - 잠

E E9 F#m C#m7

잠 해 지 네 - 주 나 의 사 - 랑 - 그 발

Em A D(add2) Bm A/C#

앞 에 - 앉 아 - 내 모 든 기 도 - 는 - 사 랑 의

D Esus4 E A

노 래 가 되 네 - 주 의 옷 자 락 만 지

E C#m7 F#m D

며 주 의 두 발 을 씻 기 며 - 주 님 - 그 발 에 입 맞 -

C#m7 F#m7 Bm7 Esus4 E A

- 추 며 - 나 의 왕 관 을 놓 으 리 - 주 의 옷 자 락 만 지 며 -

E C#m7 F#m D

- 주 의 두 발 을 씻 기 며 - 주 님 - 그 발 에 입 맞 -

C#m7 F#m7 Bm D/E A

- 추 며 - 나 의 왕 관 - 을 놓 으 리

십자가를 등에 지고

Billy Sprague & Niles Borop

원제: 고난의 길

주속일 역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 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 올걸을 때
 사랑 들은 물려왔네 죽음 의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 서
 들은 말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 다
 그들은 소리쳤네 - 자칭 메시아를 못박 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자신마저 구원 못하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길만이 진정한
 때 - 내 버리고 -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 갈보리 길 - 사랑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여류 살렘 유다와 땅 - 끝까지
 - 구원의 상물이 되어 온 세 상을 덮었네 세상의 -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바 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
 네 - 생명의 길 - 우 - 우 - - -
 우 - 우 - - -

Copyright (C) Word Music Inc./Meadowgreen Music/EMICMP.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Mark Altrogge

윤네이션스 역

우리 죄 위해 - 죽으 - 신주 - 십자가 사랑 - 감 - 사 하
 네 날 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 되리라 --
 십자가 우 - 릉 새롭 게 하 리 놀라 운 사랑 -
 찬양하 - 리라 우 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 - 네 -
 놀라 운 사랑 - 찬양하 - 리라 십자
 가 의 그 능 력 십자 가 의 그 능 력

Copyright (C) 1988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